

“믿음 없는 기도, 기도 없는 믿음”
Faith-less Prayers, Prayer-less Faith
(마가복음 Mark 9:14-29)

골동품의 가치를 평가해주는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골동품을 가지고 TV 방송에 나옵니다. 골동품을 소장하게 된 사연을 소개하고 본인의 예상가격도 직접 적어냅니다. 어떤 중년 신사가 아주 오래돼 보이는 붓글씨 한 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붓글씨에 대한 자긍심이 참 대단합니다. 예상가격도 1 억원을 넘게 써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감정만 남았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전광판을 지켜보는데, 가짜로 판정받습니다. 중년 신사의 얼굴이 벌게지더니, 금세 표정이 굳어집니다. 지금까지 가짜 붓글씨로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던 거지요.

There was an antique appraisal TV program called ‘Real Designer Label Products.’ People with antique items appeared on TV from all over the country. They told a story of how they came to possess the antique item and wrote their self-appraised price. One middle-aged gentleman brought a piece of calligraphy that looked pretty old. His self-pride on that calligraphy was quite high. He wrote in over \$100K as expected price. Now only an expert’s appraisal remained as last step. Everyone held their breath and looked up the electronic panel, but it was judged to be a fake. The middle-aged gentleman’s face turned red and became stiff right away. Until that moment, he had been bragging around the neighborhood with the fake calligraphy.

우리의 믿음도, 기도생활도 가끔씩 말씀에 비추어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귀해 보이고 괜챦아 보일수록 가짜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진짜같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100% 원조 진짜 순 참 기름**집. 도대체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100%/원조/진짜/순/참기름, 진짜라고 강조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나옵니다.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간 동안에 아홉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흉내를 내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도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귀신을 물리치셨습니다.

From time to time our faith and prayer life also needs to be examined against The Word. Why? The more precious and great looking it appears to be, the more likely it is a fake. There are far too many real-looking fakes in the world these days. **100% original real pure sesame oil producer.** How badly have fake products proliferated so that advertisements overemphasized such as 100%, original, real, pure, sesame oil? In today’s scripture, a fake

that looks so real comes up. While the Lord went up to the Mountain of Transfiguration, the nine disciples tried to copy Jesus. No matter how hard they tried, they couldn't drive out the demon in a child. But the Lord drove it out with a rebuke.

“주님, 어째서 저희는 주님처럼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한숨, 깊은 절망감이 느껴지세요?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각 마을로 파송했을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요. 기억나세요?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멋지게 예수님 흉내내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창피만 당했습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7:15).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9:18b).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7:16b).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9:40b).

“Lord, why couldn't we drive it out like you?” Do you feel the sigh and deep despair of the disciples? When the Lord previously sent out the disciples to villages, truly amazing miracles happened, remember? They drove out the demon and healed numerous sick people. But, this time around when they tried to mimic Jesus, they were only shamed by the village people. “Lord, have mercy on my son. He has seizures and is suffering greatly. He often falls into the fire or into the water” (Matthew 17:15).

So I asked your disciples to drive out the spirit, but **they could not** (Mark 9:18b).

They could not heal him (Matthew 17:16b).

They could not (Luke 9:40b).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한 것도 모자라서 주님 앞에서 고자질까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어떤 때는 사라져 버린 것 같고. 어떤 때는 우리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는데, 어떤 때는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지요. 어떤 때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 또 어떤 때는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립니다. 어떤 때는 구름 위로 하늘을 날다가, 어떤 때는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정말 신나고 멋진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오직 믿음, 오직 기도, 믿음과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주님만 믿고, 주님 한 분만 따르고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뭘 보고 있는가입니다. 만약 육신의 눈만 떠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As if being shamed before crowd wasn't enough, they also were being tattletaled before Jesus. In fact, today's scripture is the story of you and me also. Sometimes the Lord's power is revealed in our lives, but sometimes it seems to have disappeared. Sometimes our prayer is instantly answered, but sometimes our prayer seems to be up in the air. Sometimes we are people of great faith but at another time our faith is totally robbed of. Sometimes we

float above the cloud, but at another time we cannot dig our way out of a deep hole. Do you want to live a really exciting and hip faith life? Only faith and prayer are absolutely needed. Let's first think about faith. We all want to believe in the Lord alone and follow the Lord alone. The problem is what our eyes are looking at. If we look at the world with the eyes of our flesh only, the Lord cannot be found.

오랜 세월 수도원에서 묵상과 기도생활을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하산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구두를 고치기 위해 수선공을 찾아가서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식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아내와 8 명의 아이들, 모두 10 명입니다.” “구두를 수선해서 열 식구가 굶지 않고 먹고 살 수는 있습니까?” 수선공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저는 다만 주님의 종들의 신발이 편안하도록 수선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요.” 수도사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도사는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구두 수선공은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믿었습니다.

There was a priest who spent many years in meditation and prayer at a prayer house. He started thinking that now it would be okay for him to come out slowly from the prayer house in the mountain into the secular world. One day he went to a shoe repairman to fix his shoes and shared a short conversation: "How many family members do you have?" "I have all ten, a wife and eight children." With shoe repair, can you feed ten people without being starved?" The repairman thought for a moment and answered. "I only repair shoes of the Lord's servants comfortable. God will take care of the rest." The priest left the shop so embarrassed and went back to the prayer house. The priest did not find the Lord, but the shoe repairman found the Lord and believed in the Lord.

오늘 본문이 변화산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변화산 사건은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32:1b).**

It is very significant that today's scripture immediately follows the change event in the Mountain of Transfiguration. The change event is linked to the scene where Moses experienced the glory of God on the mountain. When Moses did not come down from the mountain, the people asked Aaron to make an idol: **Come, make us gods who will go before us. As for this fellow Moses who brought us up out of Egypt, we don't know what has happened to him (Exodus 32:1b).**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는 이렇게 금세 들통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니라 인간 모세가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들의 소유인 금을 녹여 부어서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다.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믿음 없는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주님도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믿음 없는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무엇때문인지 기록돼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지루하게 말싸움을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느냐?” 한 사람이 주님께 상황을 설명해 드립니다. 더러운 귀신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아주 절박한, 자기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마가복음 9:22).

Whether one has faith, whether the faith is fake or sincere, is quickly revealed. The Israelites had two wrong beliefs. One is that Moses, not God, brought them out of Egypt. The other is that they mistakenly believed that they could make God out of the gold in their possession. God was angry with the people of Israel who had false beliefs: **"I have seen these people and they are a stiff-necked people. Now leave me alone so that my anger may burn against them and that I may destroy them."** Moses came down from the mountain and met with the faith-less people. The Lord also met the disciples of little faith soon after he came down from the Mountain of Transfiguration. Although it is unknown what it was about, the disciples were arguing with the scholars of law. The weaker one's faith is, the more one speaks! A long quarrel did not end the argument. "What are you all arguing about?" Jesus asked. A man in the crowd said, "I brought my son who is possessed by a dirty evil spirit. But your disciples could not drive out the evil spirit." The father prayed desperately for his son at all costs, even including his own life: **It has often thrown him into fire or water to kill him. But if you can do anything, take pity on us and help us** (Mark 9:22).

앞 뒤 문맥을 살펴보면, 주님께서서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 믿음이 없는 아버지, 더군다나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 단단히 화가 나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v.19).

23 절에는 주님의 거룩한 분노에 대한 이유가 더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나?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새번역).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개역개정).

If you look at the context, the Lord must have been very angry with the faith-less disciples, the faith-less father, and the faith-less generation:

O faith-less generation, how long shall I be with you? How long shall I bear with you? Bring him to Me (v. 19).

Verse 23 specifies the reason behind the holy anger of the Lord.

'If you can'? said Jesus. Everything is possible for one who believes (NIV).

If you can believe,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who believes (NKJV).

잘 보세요. 잘 들어 보세요. 아버지는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주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의 문제로 바꿔 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아이는 무녀독남,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게다가 간질병을 앓았는데, 갑작스럽게 발작할 때마다 아비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했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제발 제 아이를 보살펴 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Take a good look. Listen carefully. The father was only interested in the Lord's capability, whether he could cure his son or not. But the Lord changed it into a matter of faith. In another Gospel, this boy was only child for the father. The only child had epilepsy. Every time he suffered a seizure the father was heartbroken. The father desperately prayed for God to heal his son, but it was a **faith-less prayer**: ‘**If you could, please take care of my child, please help us.**’

우리도 종종 예수님을 너무 배려(?)해서, 주님, 하실 수 있으시면; 주님, 하실 만 하시면; 주님, 바쁘실 텐데 지금 좀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주님과 의 친밀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입니다. 주님을 부르는데 거창하고 화려한 수사가 붙습니까? 주님이 내 맘을 알아 주실까 늘 불안하십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믿음 없는 기도보다 ‘주님,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 주십시오!’ (마가복음 9:24)

Sometimes don't we consider the Lord too much and pray like this as a result? Lord, if you can; Lord, if you think it's worth doing; or Lord, if you can find time out of your busy schedule... Prayers are a good measure of the intimacy in your relationship with the Lord. Do you use big and colorful words to call out the Lord? Do you always worry whether the Lord knows your mind or not? Are you unsure about the answer to your prayer? A faith-less prayer is like to try to hit the air. Instead of a faith-less prayer, pray for faith. "I do believe;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Mark 9:24)

예수님의 빈자리를 제자 아홉 명이 멋지게 메꿔보려 했습니다. 눈으로만 봤던 예수 치유의 기적을 자기들도 한 번 멋지게 베풀어 보고 싶었겠지요. 그것도 주님과 세 명의 수제자가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에는 절망의 골만 더 깊어졌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어쩌면 손 얹고 안수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도 주님처럼 이 아이를 낫게 할 수 있다'는 당찬 확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뭔가를 하려는 것이 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정확한 처방전을 주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마태복음 17:20).

The nine disciples tried to fill Jesus' shoes in style. They probably wanted to perform the same miracle of healing they had been witnessing Jesus had done. They wanted it done before Jesus and His three best disciples come back from the mountain. But they found themselves only in deeper hopelessness. 'Why couldn't we drive it out?' Perhaps, when they had their hands on the child to pray, they had a strong conviction of 'we can heal this child just like the Lord.' It is always the problem thinking that we can do it with our own power. The Lord gave them the correct prescription:

Because you have so little faith. Truly I tell you, if you have faith as small as a mustard seed, you can say to this mountain, 'Move from here to there,' and it will move.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Matthew 17:20).

때로 우리는 믿음이 없는 기도를 간절히 드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사탄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6).

At times, we pray a faith-less prayer fervently, which neither pleases God, nor has the power to overcome Satan.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Hebrews 11:6).

자, 지금까지 '믿음 없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기도 없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차례입니다. '목사님, '믿음 없는 기도'는 이해가 되는데, '기도 없는 믿음'이라니요?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 좀 보세요.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엄청난 기적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결정적 결핍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자기 암시 또는 빈약한 긍정의 힘이 됩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마가복음 9:29).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시려고 정말 온 힘과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믿음이 없는 기도'와 '기도가 없는 믿음'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We have thus far talked about faith-less prayers. It's now time to think about the prayer-less faith. Pastor, I can understand faith-less prayers, but what is the prayer-less faith? Think about the disciples in the Gospel of Mark. They have confessed they believe in the Lord with their lips and have witnessed the amazing miracles with their eyes. But they lacked something very crucial, which was to call out the name of the Lord, to pray in the Lord's name. Prayer-less faith can be blind autosuggestion or scanty power of optimism. **"This kind can come out only by prayer"** (Mark 9:29).

Jesus, the Son of God, also prayed. Early morning/overnight prayers, mountaintop prayers, prayers while fasting, and so forth, he tried to talk to God in prayers with all his heart and all his power. Jesus was always vigilant about the faith-less prayer and the prayer-less faith.

2008년 연합감리교 총회에 특별한 손님이 초대된 적이 있습니다. 14년간 25만명이 사망한 Liberia 내전기간 동안 민주화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사형선고를 받고, 두 차례 망명의 길을 떠났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의 한복판에서 두 명의 군인에게 끌려갈 때도 차분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리라.' 한 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도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분은 바로 아프리카 최초의 여성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Ellen Johnson Sirleaf입니다.

There was a special guest at the United Methodist Annual Conference in 2008. She has led the pro-democracy movement during the Liberian civil war, where 250,000 people died in the period of 14 years. She received a death sentence for fighting against the military dictatorship and sought asylum twice. When she was being dragged by two soldiers in the middle of a battlefield covered with shower of bullets, she prayed calmly: 'The Lord is my shepherd, He will lead me to green pastures.' Imagine praying in the midst of a crisis as the Bible tells us. Her name is Ellen Johnson Sirleaf, the first female president in Africa and the laureate of the Nobel Prize for Peace.

왜 우리 삶이 무기력합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내 가정, 내 일터, 내 주변이 하늘나라로 변하지 않습니까? 질문은 여러가지이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말만하고, 정작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Why do we feel lethargic about our life? Why doesn't God's power work in our family? Why aren't my family, my workplace, and my surroundings turning into heaven? All these questions lead to one answer: it is because we don't pray. It is because we say we believe but we don't kneel down and pray.

내일 저녁에는 성탄 전야 예배, 모레 아침에는 성탄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맞이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기도는 겉보기는 진짜처럼 보여도 가짜 기도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자기암시나 자기확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주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님께 기도할 때에만 확인될 수 있습니다.

We will hold the Christmas Eve service tomorrow evening, followed by the Christmas service the morning after. Let's not celebrate Christmas without Jesus. A faith-less prayer may seem authentic on the outside, but it is a fake prayer. Prayer-less faith is nothing but self-fulfilling prophesy or self-serving conviction. A true prayer is of the faith trusting the Lord 100 percent. One's true faith can only be confirmed when praying to the Lord.

믿음 없는 기도, 기도 없는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믿음과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누리는 길입니다.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성탄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Let us depart from the faith-less prayer or the prayer-less faith. Both faith and prayer let us connect with the Lord and enjoy the Lord's mighty power. I bless you have the winning Christmas week through faith and prayer.